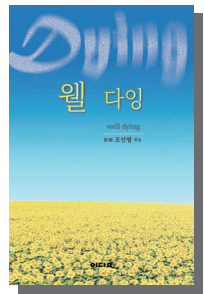


“죽음은 피해야 할 공포가 아닌 준비할 삶의 일부입니다”

‘인간다운 죽음’ 준비하는 삶 조선행 작가 ‘웰 다잉’ 출간 “매순간 충실하게 사는 태도”



웰 다잉 well dying
조선행
이담

“죽음은 피해야 할 공포가 아니라, 준비할 삶의 일부입니다.”

삶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인문학 강의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선행 작가가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를 묻는 책 ‘웰다잉 well dying’ (이담)을 출간했다.

조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삶, 곧 ‘잘 죽는 것’의 가치를 조명한다. 책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누구나 존엄

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인문학적 성찰에 초점을 맞췄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여정이다. 조 작가는 “죽음을 가르치는 일은 곧 삶을 가르치는 일이다”고 말하면서 웰다잉을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훈련이 아닌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조 작가는 ‘잡살이(웰빙)’, ‘잡늬기(웰에이징)’, ‘잡죽음(웰다잉)’이라는 개념을 연결지며 웰다잉이 단지 말기 의료나 장례문화에 국



조선행 작가

한된 개념이 아님을 강조한다. 웰다잉은 죽음의 연습이 아니라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충실히 사는 태도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조 작가의 말처럼 책은 독자에게 삶의 방향까지 다시 묻게 만든다.

죽음 인식의 중요성도 주목한다. 조 작가는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내며 바쁘게 살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순간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다”며 “죽음에 대한 준비는 후회 없는 삶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라는 현실을 마주한 한국사회에 웰다잉 교육은 단순한 죽음 교육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철학적 운동이기도 하다. 조 작가는 우리 사회에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웰다잉 교육이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진단하며 보다 인문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책에는 웰다잉 교육 현장에 필요한 표준 교안

과 실천적 지침도 함께 담겨 있어 실용성과 이론을 동시에 갖춘 교양서로서의 가치를 갖춘다. 무거운 주제를 따뜻하고 쉬운 언어로 풀어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며 일반 독자부터 교육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읽힐 수 있는 책이다.

조 작가는 “죽음을 통해 삶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웰다잉의 핵심”이라며 “이 책이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삶, 참된 죽음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행 작가는 광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컴버랜드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죽음지도사, 웰다잉 지도사 1급, 웰다잉 전문강사 1급 등 다양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조혜원 기자

삶의 불안·소외·현실 날카로운 시선으로 풀어내

8개 단편 이방인들 고군분투 조망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내게 조금 더 호의적이었다면 어땠을까. 나도 저들처럼 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천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욕망하는 것을 스텝없이 욕망했을 것이다. 일만 시간의 시간의 법칙을 가볍게 뚫개 버린 것에 대한 욕망. 그것은 사유의 문제가 아니라 태생의 문제였다. 그것을 깨닫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 (‘남은 건 명랑한 최선’-우체국 여자 중에서)

강나운 소설가가 8편의 이야기를 묶은 첫 소설집 ‘남은 건 명랑한 최선’ (걷는 사람)을 출간했다.

여덟 편의 단편을 통해 시대를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고군분투를 명랑하게 조망하고 삶의 틈마다 배어든 불안과 소외, 현실에 대한 예민한 인식을 경쾌한 문체와 날카로운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표제작 ‘남은 건 명랑한 최선’의 화자는 불안에 사로잡힌 대학생이다. 코딩 수업을 들으며 무작정 자격증을 준비하지만, 어느 날 불현듯 마주한 컴퓨터 학원 광고에 이끌려 인생의 또 다른 국면을 맞는다. ‘간단히 리셋’ 된 삶. 그러나 그것은 실패를 딛고 다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기묘한 장치로 작용한다.

첫 문을 여는 ‘방금 있었던 일’의 ‘보람’은 스스로를 아스퍼거 증후군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이라는 현실 앞에 정체성을 버리고 타협한다. ‘카피라이터, 김 과장’은 자본주의에 깊이 몰든 직장인의 모습 속에서 진정성의 실재를 묻는다.



남은 건 명랑한 최선
강나운
걷는 사람

등단 작가이자 우체국 직원인 주인공이 남의 원고를 몰래 읽고, 그것을 여러 신문에 응모하는 기행을 벌이는 ‘우체국 여자’, 갑자기 사라진 찢까지를 찾아 신도림역을 헤매는 ‘네 찢까지를 찾고 싶다면 신도림역 4번 출구로 와라’ 같은 작품은 현실의 경계를 기이하게 비틀며 독자에게 묘한 웃음과 불안을 동시에 안긴다.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던 주인공이 끝내 세상의 위선과 마주하게 되는 ‘오늘의 해시태그’, 하루를 복사하듯 살아가는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과 화해를 결심하는 ‘하루’에 이르기까지 인물들은 정체성과 발발 사이의 딜레마를 유쾌하면서도 날카롭게 그려낸다.

작가는 이방인의 시선으로 현실을 포착하고, 삶의 이면에 잠재된 부조리와 허상을 드러낸다.

그러나 끝끝내 인물들은 무너지지 않고, 명랑하게 돌파할 공리를 한다. 평온한 삶 속에서 느꼈던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이 담겼다.

강 작가는 2020년 한국작가회의의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문학상에 단편소설 ‘우체국 여자’가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단편소설 ‘방금 있었던 일’로 제15회 노근리 평화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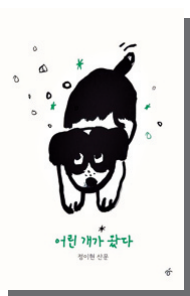
조혜원 기자

소설가 정이현의 전주 초보 탈출기…산문 ‘어린 개가 왔다’

‘달콤한 나의 도시’ 소설가 정이현(53)이 처음으로 반려견과 동거하며 겪은 일들을 기록한 산문집 ‘어린 개가 왔다’ (한겨레출판)를 펴냈다. 한겨레신문에 연재한 글을 모은 이 책은 정이현이 ‘우리가 녹는 온도’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산문집이다.

저자는 동물을 무서워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평생 개와 가까워질 기회가 없었다. 어릴 적 가까이 지내던 사촌 언니들마저 개를 무서워해 대문 앞에 ‘개 조심’이라고 써 붙인 집 앞을 지날 때면 저자에게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며 먼 길로 돌아갔다. 저자는 2022년 12월 달력 생후 3개월 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게 된다. 10대인 두 딸이 틈만 나면 유기 동물 보호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들여다보다가 입양되지 않은 강아지를 데려오자고 조른 결과다.

몸무게 3kg 남짓, 검은색과 흰색 털이 불규칙



하게 섞인 수컷 강아지가 집에 도착한 날, 저자는 “사람이 온다는 건/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정현종의 시 ‘방문객’을 떠올린다.

“그렇다. 누가 온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방금 누군가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한 ‘개’의 일생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본문에서)

이렇게 이 집의 다섯 번째 가족이 된 반려견 ‘루돌이’는 끊임없이 저자를 당황하게 한다.

루돌이는 가족들이 마련한 울타리 안에 웅크리고 앉아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고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행동하는가 하면, 자기를 산책시키던 저자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돌연 외출을

거부하기도 한다.

저자는 이런 루돌이의 행동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때마다 반려견 훈련사나 반려견과 함께한 경험이 많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차츰 루돌이의 마음을 이해해간다.

이처럼 루돌이가 왜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과정에서 저자는 자신이 반려견의 입장이 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점을 깨닫는다. 아울러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반려견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이 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네고, 반려동물 입양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조언한다. 여기에 더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일깨워준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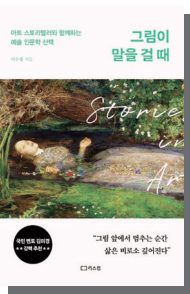
예술로 읽는 내면·시대의 감정

이수정 작가 ‘그림이 말을 걸 때’

“그림이 말을 걸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춰야 한다. 그 말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 강연가이자 아트 스토리텔러로 활동해온 이수정 작가가 신작 ‘그림이 말을 걸 때’ (리스크)를 펴냈다. 이 책은 단순한 미술 감상서가 아닌, 그림을 삶의 언어로 읽고 내면과 시대를 성찰하는 예술 인문학의 여정이다.

책은 고야, 고흐, 프리다 칼로, 샤갈 등 30명의 화가와 50여 점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작가는 명화 속에 깃든 감정과 상처, 저항과 기도의 서사를 섬세하게 풀어낸다. 고야의 절



망, 고흐의 고풍, 쿠르베의 현실, 만데나의 시대성 속에서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마주하게 한다. 단지 그림을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림을 통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다.

이 책은 문학, 신화, 철학, 시대적 배경을 작품과 엮어내며 예술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루벤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고전 거장들의 화풍에는 권력과 신의 이름으로 감내한 고통이 담겨 있다. 프리다 칼로와 수잔 발라동, 샤갈은 상실과 사랑, 자아의 흔적을 그림으로 표

현하며 삶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했다. 밀레이, 하에즈, 라파엘전파 화가들은 신화와 문화를 그리며 그림이 하나의 이야기이자 언어가 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작가는 ‘빨리-많이-대충’ 감상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천천히-깊게-대화하듯’ 그림을 바라보는 법을 제안한다. 이는 미술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 자신과 삶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술은 감상의 대상이 아닌, ‘삶을 해석하는 언어’가 돼야 한다는 것이 이 작가의 일관된 철학이다.

이수정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숭실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25년간 기업과 기관, 대중 강연 현장에서 ‘아름다움을 읽는 힘’을 전해왔으며 현재 예술 인문학 플랫폼 ‘심미안 학교’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조혜원 기자

새책 나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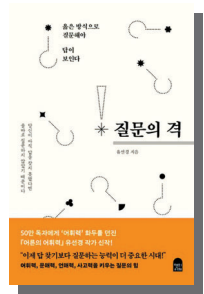
NEW

돈의 흐름은 되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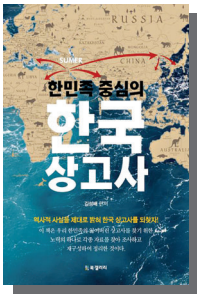
32년 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가 ‘돈의 방향’과 ‘정책의 전환점’을 읽는 법,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돈의 흐름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00년 동안 반복된 시장의 주기를 분석하고 경제 사이클과 자산 흐름을 읽는 법을 초보자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자산 가격의 등락을 결정짓는 거시 경제 지표부터 투자 심리, 버블과 붕괴의 메커니즘까지 폭넓게 다루며, 반복되는 시장 사이클 속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금리 변화, 기술 혁신, 그리고 심리적 과열이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포르체. 홍춘욱 지음.

질문의 격



우리는 답하는 사람으로 자랐지만 질문하는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다. 이제 와서 질문이 중요한 세상이 됐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질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렵게도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에게 ‘질문하기’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다. 작가는 문장에 ‘왜’를 넣는다고, 문장 끝에 물음표를 매달아 놓는다고 다 질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또 ‘세상에 잘못된 질문은 없다’고 하지만 질문에는 분명히 옳은 방식과 잘못된 방식이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면 올바른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질문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에서 찾고 질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5가지 효능을 알려준다. 앤의서재. 유선경 지음.

한민족 중심의 한국 상고사



허구로 폄하된 한민족상고사를 재구성했다. 상고사에 가려진 부분이 많아 대부분의 실제적인 역사도 사실이 아닌 신화로 인식돼 허구로 폄하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다. 구성된 신화 속에 숨겨진 역사를 되찾고자 할 때는 신화와 역사적 사건의 동시성이 매우 중요하다. 신화와 역사적 사건이 진행된 시기를 잘못 판단하거나 발생 연도를 올려 과장해서 기술하면 신화 자체가 허구로 전락하기 때문에 신화의 역사성을 규정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신화와 역사의 비교에 앞서 조사해 본 우리 한민족의 상고사는 인류 초기 문명인 수메르 문명과 때려야 떨어지지 않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상고사를 중국 역사의 오류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 복겅러리. 김성배 지음.

미국의 배신과 흔들리는 세계



국내 최고 외교전문가 김준형 국회의원이 말하는 트럼프 태풍에 맞서는 법.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전해지는 미국의 정책 소식들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에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우방국을 포함해 다룬 주권 국가를 향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는가 하면 관세율 최대 3,521% 부과한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등 한 국가의 대외적 행보라고 하기에 터무니없는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미국을 이해하려면 급변하는 국제정치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라는 인물의 등장이 일말이나 기현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글로벌 패권화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동시에 동력이라는 것이다. 창비. 김준형 지음.

수면의 뇌과학



30년 경력의 수면의학 전문가가 전하는 수면 습관. 낮에 커피 한 잔쯤은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아가 저녁에 커피 한 잔 마셔도 자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2013년 헨리포드병원 수면센터의 연구자 톰 로스는 잠자기 6시간 전에 섭취한 카페인 수면 시간을 1시간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다.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수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착각이라는 뜻이다. 밤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 놓은 채 자는 건 최악의 습관 중 하나다. 반면,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보며 운동하고 잠들기 1시간 전 온수 목욕을 하고 코릴 때까지 종이책을 읽는 건 수면에 좋다고 한다. 현대지성. 크리스 윈터 지음.